

LAT “류현진 몸값 깎아야 LAD 잔류할 것”



LA 다저스가 2020년 수뇌부를 결정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야구부문 사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2020년에도 팀을 이끈다. 이제부터 전력 구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1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한다. 가장 거물급 선수는 단연 류현진(32, 사진)이다. 다저스는 지난해 이맘때 류현진에게 켈리파인오퍼를 제시해 1년을 올려 앉혔다. 올해는 다시 켈리파인오퍼를 제안할 수 없다. 류현진을 원한다면 FA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다저스는 신중하다. 프리드먼 사장 부임 후 내부 FA에 거액을 지불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꺼렸다. LAT타임스(LAT)는 이날 류현진이 양보를 해야 팀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저스가 큰 돈을 쓰지 않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류현진이 정말 팀에 남고 싶어 하거나 혹은 계약 규모를 스스로 줄이는 전격적인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라스는 류현진을 두고 “리그 최고의 선발투수임은 물론, 이제 진정한 류현진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깎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언론들도 다저스보다는 다른 팀이 류현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건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남기 어렵다.

한편 류현진은 메이저리그(MLB) 선수노조가 이날 발표한 ‘올해의 재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재기상은 현역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수상자는 상금 2만 달러를 본인이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수상자는 22일 발표한다.

르브론 친중 발언에 팬들 “중국 무섭나?”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홍콩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대릴 모리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홍콩 시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였을 것”이라면서 “트위터를 조심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NBA



선수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홍콩 시민들의 울분을 샀다.

◀ 홍콩 시민들이 르브론의 친중 발언에 항의해 SNS에 올린 르브론과 마우쩌둥을 합성 한 사진

이 발언이 알려지자 홍콩 시민들은 르브론의 유니폼을 불태우며 분노했다. 르브론과 마우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르브론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조롱했다. 르브론이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소신 발언을 해온 만큼 르브론의 ‘홍콩 이슈 발 빼기’가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릴 모리 휴스턴 로키츠 단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홍콩과 함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중국 중앙방송 CCTV는 중계를 중단했고 휴스턴을 후원하던 중국 기업들은 스폰서십을 중단하는 등 반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아담 실버 NBA 총재는 지난 7일 “유감이다. NBA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 해 매출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마이클 김 구하기大作전



▲ 지난 7월 15일 알라노이주 샬비스에서 열린 PGA 투어 존디어클래스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마이클 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약 20여년 전 개봉했던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제목이다. 그런데 얼마전 긴급 작전을 통해 골프백을 분실한 한 골퍼를 구한 일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재미동포인 마이클 김(25, 한국명 김상원)이다.

1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마이클 김은 지난 1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집을 기다리던 마이클 김은 항공사로부터 골프백이 분실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항공사는 “빠르면 16일, 최악의 경우에는 대회 1라운드 시작 전까지 골프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클 김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총상금 975만 달러)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마이클 김은 고민 끝에 14일 오전 타이틀리스트 선수 지원팀인 ‘리더십팀’에 도움을 청했다. 리더십팀은 마이클 김의 골프백이 분실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가장 먼저 클럽의 스펙을 확인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마이클 김이 사용하는 샤프트와 골프백이 제주 투어밴에 없던 것이다. 리더십팀은 서울 본사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날 밤 10시에 퀵서비스로 제품을 받았다.

리더십팀이 클럽 제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모든 투어 선수들의 클럽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덕분이었다. 리더십팀은 15일 새벽부터 마이클 김 클럽 제작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클럽 세팅을 마쳤다. 연습 라운드를 나가기 전 투어밴을 찾은 마이클 김은 완성된 자신의 클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클럽이 없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는데 리더십팀의 도움으로 새로운 클럽을 갖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NEWSTAR Realty & Inv. 뉴스나부동산 한인타운, 부에나팍, 플러튼, 라하브라, 세리토스, 엘바인, LA. OC 전지역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에이전트!

Eric Kang 에릭강 Cell 213.663.8544 erickang@newstarrealty.com

한인타운 콘도 \$46만 5천 HOT 방2+화2 약 980 sf 대 약 41,000 SF 좋은 동네	한인타운 콘도 \$57만 방2+화2 약 1,120 sf 대 약 9,000 SF 좋은 동네, 좋은 학교	부에나팍 콘도 \$45만 8천 HOT 방3+화2 건 약 1,270 sf 대 1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58만 방2+화3 건 약 1600 sf 대 약 2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62만 방3+화2 건 약 1,640 sf 대 약 58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부에나팍 \$61만 5천 방3+화2 건 약 1,840 sf 대 약 6,6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플러튼 콘도 \$39만 HOT 방2+화2 약 1,1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콘도 \$40만 HOT 방2+화2 약 1,2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콘도 \$59만 5천 방3+화3 약 1,54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하우스 \$56만 HOT 방3+화2, 약 1,27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하우스 \$57만 5천 HOT 방3+화2 약 1,800 sf 대 약 7,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하우스 \$60만 방4+화3 건 약 1790 sf, 대 약 6,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라하브라 콘도 \$42만 HOT 방3+화2 건 약 1,1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1만 방3+화2 건 약 1120 sf, 대 약 6,200 sf, 좋은 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6만 HOT 방3+화2 건 약 1700 sf 대 약 5,60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54만 HOT 방3+화3 건 약 1,53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65만 방3+화4 건 약 1,85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67만 방3+화2 건 약 1,500 sf, 대 약 5,3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72만 HOT 방4+화3 건 약 2,100 sf, 대 약 4,1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84만 HOT 방4+화3 건 약 2,080 sf, 대 약 6,400 sf, 좋은 동네

비즈니스 매물
다운타운 메디칼 유니폼 홀세일
\$738,000
인벤토리 포함 가격!
월 매출: 평균 \$62,000
Net \$12,000 이상
인벤토리 \$450,000(수입 원가)
20년된 비즈니스
영어필요
가족 비즈니스로
최고의 아이템
무한한 포텐셜
꼭 사실만 연락주세요!

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상가 / 아파트 / 창고 사고 파실분 연락주세요! www.newstarrealty.com